

혜능 나무꾼에서 '마음 혁명가'로



육조 혜능 평전
이은운 지음
동아시아 | 1만2천원

그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다.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거나 암송하지도 않았으며 단 8개월 동안의 행자생활 기간에도 방아를 찧고 장작 패는 일을 한 것이 수행의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육조 혜능'이라 부른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祖師) 조계혜능(曹溪惠能, 638~713) 스님의 평전이 나왔다. 지은이는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기자 이은운 씨. 한국불교선학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씨는 "혜능 스님은 동아시아인의 마음밭(心田)에 선(禪)의 씨앗을 뿌린 '마음의 혁명가'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은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개방화 물결을 타고 중국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선불교 연구가 불학(佛學)적, 선종사적 측면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평전을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혜능 스님이 정식 출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종 6대 조사라는 지위에 오른 것은 통념과 전통을 깨는 이변이었습니다. 또한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길에 귀한 자와 천한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혜능의 선사상은 중국 고대 사상 중 가장 격렬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혜능의 선사상은 단순한 하나의 불교사상이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사상이 종교 형식을 빌어 표출된 '혁명사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은이는 혜능 스님의 선사상이 성립·발전하게 된 사회사적 측면으로까지 시선을 넓히고 있다. 인간 각자가 스스로 본래의 깨침을 이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自有本覺性)거나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即心即佛)'라는 혜능 스님의 가르침은 당시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억눌린 자들이 갈구하는 해방운동의 사상적 의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혜능의 선종 장입은 선종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와 중국인들의 일상적 삶에 심원한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해방사상의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부 '혜능의 생애'에서는 혜능 스님의 탄생과 출가, 5조 홍인 스님의 인가와 남방에서의 은둔 생활 등을 담고 있다. 생애에 관한 이견(異見)이나 연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쟁점' 코너에서 여러 견해를 소개한다. 2~5부에서는 혜능 스님의 사상을 짚어본다. 법을 전수 받게 되는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 등 핵심 설법 민중 해방운동의 사상적 의지처로 해석

계기가 된 득법계(得法偈)와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날리는 것은 바람이나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풍번(風幡) 문답' 등의 계승의 뜻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짚어본다. 6부 '혜능과 모택동'에는 "혜능 스님은 전통적인 이상과 계율을 부정하면서, 용감하고 독창적인 혁신을 통해 중국 실정에 맞는 외래 종교의 중국화를 이룩했다"고 평가한 모택동 전 주



혜능 스님이 5조 홍인 대사 문하로 출가해 행자시절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던 중국 호북성 용이저의 디딜방아.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혜능상(像). 사진제공=동아시아

석의 '혜능관'과 불교 인연을 담았다. 7, 8부에서는 혜능 스님의 일생과 설법을 수록한 <육조단경>을 다루고 있다. 남종선의 기본 입장과 특징을 보여주는 근본자료인 <단경>의 성립 배경과 제작의도, 명칭의 성립, 개작(改作) 설 등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소태산 박종빈 1, 2> (이혜화 지음, 동아시아, 각9천원) = 지난 4월 28일 89회 대각개교절을 맞아 퍼낸 원불교의 창교자 소태산 박종빈(1891~1943) 대중사의 전기 소설. 전남 영광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소태산이 자연현상과 인생에 대한 의문을 품고 발심해 20여 년간 구도 고행을 계속한 후,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 (한수근 엮음, 동문선, 1만원) =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살도 속에 파묻어 버리는 공부부터 시작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을 봐야 합니다." 월운 스님, 신동아 2001년 6월호) 198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500여명의 화제의 인물 인터뷰 속에서 그들의 활약을 담긴 말들을 가려 묶었다. 성현이나 대학자들의 명언·격언이 아닌 실제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말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 <일원곡 지장경> (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퍼냄, 법공양판) = 경기도 광주시 우리절(주지 통봉, www.urijeol.com)은 '일원곡(一圓曲)' 시리즈 아홉 번째 권 <지장경>을 법공양판으로 발간해 무료로 배포중이다. <지장본원경>을 사구체 우리말로 풀이했다. (031)763-4674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역시야문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3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4	무문관 강승	김광하	운주사
5	탁났한 스님의 금강경	탁났한	장경각
6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7	불교의 이해와 수행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부
8	아! 붓다	탁났한	반디미디어
9	법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10	말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민족사

「바보로인 선문염송 제4권 출간」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달려 있다. 역자지인 대한문제선 선사는 선문염송에 첨마다 도음판과 송으로 위모임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증이 숨어있는 공안창구의 깊이를 역량을 허냈다.

www.zenparadise.com
02-597-2460 도서출판

계송 읽다보면 가르침 가슴에 '쑥'



숫타니파타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3만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흠뻑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울조려봤을 <숫타니파타>의 한 구절이다. 최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51·사진) 박사가 '불교 최고(最古)의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팔리어 원전을 번역해 펴냈다. 그동안 일본의 석학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의 번역서를 다시 우리말로 옮긴 책은 수차례 선보였지만 원전이 직역돼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박사는 이번 책에서 2,581개의 주석을 통해 경전이나 시의 성립배경에 대한 유래를 세밀하게 밝혀 놓았다. 특히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독어·일본어 등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틀린 곳을 찾아내고, 어원학적·운율학적 분석도 더했다.

"<숫타니파타>는 부처님의 육성을 적은 가장 오랜 경전입니다. 인도에서 해독 가능한 가장 오래된 비문인 아쇼카왕의 비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이 <숫타니파타>에 들어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숫타니파타>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초기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타니파타 원전 첫 한글 직역 2500 주석 통해 경전 유래 서술

특히 '이미 생겨난 분노를 극복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독을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나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한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나,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다' 등의 구절은 탁월한 비유와 설명으로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수령 기자

언제나 상대방 마음 먼저 헤아리거라

꼬마 판다의 깨달음
요네야마 가스토 글
다나베 히로시 그림
세동스님 옮김
BB아이들 | 1천5백원



5월 5일 어린이날,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할 계획이세요?

만화책 <꼬마 판다의 깨달음>에 펼쳐지는 꼬마 판다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꼬마 판다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내일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면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러나 그 전에 세 가지 문제를 풀어 야 한다고 말합니다.

꼬마 판다는 다음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합니다. 가는 도중 길 잃은 아기 양과 배고파 쓰러진 곰, 배가 아파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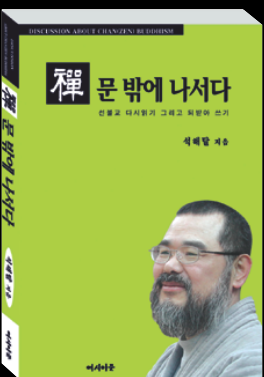
을 청하는 고양이를 만나지만 약속 시간에 늦는 것 같아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꼬마 판다는 약속 시간에 도착했지만 부처님은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는데도 모른 채 지나친다면 그 곳에는 나의 가르침이 없는 것이라.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이들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 줄 것이다."

이제 꼬마 판다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을까요? 여수령 기자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이 「선,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패치워크)처럼...

- 본문 중에서

신국판 / 456면 / 14,000원 / 석해탈 저 / 여시امن

「금강경」해설의 3대 법사는 해안 스님, 백성욱 박사, 석해탈 스님, 이 세 분이 꼽힌다. - 현대불교신문 2544년 6월 21일자 275호 지복 스님의 글에서 -

禪

문밖에 나서다

